

전북자치도 “한우 개량 속도 높인다!”

**고능력 한우 정액 9465개 무상 공급
고능력 암소 보유 농가 우선 배정
저능력 암소 도태 참여농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 우수 혈통을 가진 한우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능력 한우 정액 9465개를 도내 농가에 무상 공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급된 정액은 KPN1885 5465개와 KPN1921 4000개다. 사업은 고능력 암소를 보유한 농가 618호와 저능력 암소 도태에 참여하는 농가 510호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우수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고능력 암소 보유 농가에 정액 4765개를 배정하고, 저능

력 암소 도태 농가에는 정액 3300개를 지원했다. 한우 개량은 성장 속도와 육질, 도체 중 등이 우수한 개체를 지속적으로 선발·교배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우수 혈통 정액을 활용하면 품질이 뛰어난 송아지 생산 가능성이 높아져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도 축산연구소는 한우개량 전담기관으로서 한우 유전자원 수집·보존과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한우 정액 직접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정액 무상 공급이 우수 혈통 보급 확대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가축 폭염 피해 막는다!”

**16억·닭·오리·돼지 농가 우선 공급
축산분야 폭염 대응 상황실 운영
냉방장비·재해보험 가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6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여름 기온 중 7-8월에는 높은 기

온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폭염으로 890개 농가에서 382,833마리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8억3600만원에 달하며 가축 폭염 피해 규모는 2023년 146,000마리에서 2024년 287,000마리, 2025년 383,000마리로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 8억

원 외에 예비비 16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확보된 예산은 폭염에 취약한 닭·오리·돼지를 사육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되며,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사육밀도가 높은 농가 등 폭염 취약 축산농가 206개소를 대상으로 축사 냉방시설과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

다. 아울러 올해 폭염 대응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126억원,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16억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4억 원 등 총 166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와 상황 관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스포츠 에코 플로깅 “건고 줍고”

**IOC 핵심 가치 ‘지속가능성’ 주목
‘Let’s Move’ 캠페인 연계
익산 합열올림픽센터 일원 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익산시 합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일원에서 ‘전북 스포츠 에코 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 * 플로깅(Plogging) *은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음. 이번 행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올림픽의 날(6월 23일)을 앞두고 마련됐다.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하고, 친환경 체육 문화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취지다.

행사에는 도와 14개 시군 체육담당 부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올림픽 유치 홍보서포터즈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합열올림픽스포츠센터와 합열읍 일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IOC ‘Let’s Move’ 캠페인 슬로건인 ‘YOU CAN DO THIS’는 누구나 쉽게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취지에 발맞춰 모든 운동의 기본인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을 익히고 추억의 국민 제조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한편 올림픽의 날은 근대 올림픽 부



<사진=전북도>

흥과 IOC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제정된 국제 기념일로, 매년 6월 23일 세계 곳곳에서 스포츠 참여와 올림

픽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정혜민 기자

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96명...25일까지
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청년 96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도내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청년들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배치돼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은 ‘취업형’과 ‘일자리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방식이며, 일자리창조형은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청년팀이 새로운 직무 아이템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최대 3개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월 234만원의 급여가 지원되며, 참여기업에는 운영비와 멘토수당, 4대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윤준병 발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국회 통과

**보조금 편취·가격 담합 업체
2년간 정부지원 배제**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이 농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폭리로 변질된 폐단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기계 가격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기계 이중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등 법안 의결에 앞장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본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지하면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가 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판매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사실상 ‘이중가격’을 형성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보조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판매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사실상 ‘이중가격’을 형성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울=김영목기자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특별자치도 제14회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 | | | |
|-----------------|---|-----------------|--|
| 공모 기간 |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 | 참가 자격 | 전북도내 초등학교생 |
| 문의 사항 |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 | 출품 형식 | 8절지 도화지(B4 용지) |
| | | 출품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5층 |
| 대상(3명) |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 장려상(50명)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 최우수상(4명) |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 특별상(3명) | 국회의원상 |
| 우수상(20명)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 |
| 기타 사항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주관,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시상

**전주시민대상 7명
모범시민상 3명 선정
시민들 화합·자긍심 높여**

전주를 빛낸 시민 시상식이 ‘제68회 전주시민의 날’ 개최됐다. ‘제68회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시상식’은 전주시 단오행사 무대를 활용해 지난 19일 진행됐다. 시는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단오날 ‘전주시민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68회 전주시민의 날’ △전주시민대상(7명) △모범시민상(3명) 등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련됐다.



전주를 빛낸 시민 시상식이 ‘제68회 전주시민의 날’ 개최됐다 <사진=전주시>
2026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 대상 신효균 씨(70세, 남) △문화예술 대상 문정혜 씨(68세, 여) △교육학술 대상 왕기석 씨(62세, 남) △산업·기술

대상 정인준 씨(52세, 남) △사회봉사 대상 송병용 씨(64세, 남) △체육대상 최형원 씨(63세, 남) △복지대상 서양열 씨(53세, 남)이다. 또 △박용배 씨(70세, 남) △정순우 씨(70세, 남) △송요섭 씨(80세, 남) 등 3명이 모범시민상을 받았다.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모범시민상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각각 주어졌다. 이 가운데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예우가 주어진다. 시상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들의 수상을 축하하는 전북태권도협회의 태권도 공연이 이어졌다. /정소민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둘러둘러 조물조물’ 제공

이주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전통문화 교육
전주역사박물관이 이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화된 지역 사회 환경에 발맞춰 이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사회포용 박물관 프로그램인 ‘둘러둘러 조물조물’을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장애·국적·계층·성별 등 차별 없는 문화·교육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복지센터와 보호기관, 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이동 간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가족센터와 국제요리학원에서 가족센터 구성원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도예 및 궁중요리 체험으로 구성됐다. 결혼이주 여성과 함께 전주 10미(味)를 기반으로 한 궁중요리 및 향토요리 교육이 진행되고, 중도 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물을 통해 한국의 생활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결합한 그릇을 직접 제작해 보는 도예 교육도 마련됐다. 전주역사박물관의 모든 프로그램 및 전시 일정은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 또는 각종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마을세무사’ 지원

**전주시민 세무 걱정 NO!
세무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도 가능**

전주시 전문 세무사 재능기부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사라지고 있다. 관련해 전주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국제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제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액 사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

집(www.jeonju.go.kr)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 해소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 담당자 회의

체납액 정리보류 실무교육 병행

전북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위한 담당자 간담회가 실시됐다. 지난 17일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실을 비롯한 각 경찰서 체납과태료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간담회가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실시한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및 금융재산 체납처분 결과를 분석하고 경찰서별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체납자 납부 독려 방안과 체납과태료 관리 강화 대책 등 하반기 중

점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 등이 오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서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실시 방법과 관계 법령 및 처리 절차 등을 중심으로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과태료 관리와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성숙한 법질서 확립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5월까지 납부안내 문 발송, 현장 번호판영치, 체납자 예금등 재산압류 등을 통해 약 6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정소민 기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도시민 출·퇴근 정체 해소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 추진
도민의 소리 정책 반영**

전북경찰청 이재영 청장이 교통환경문화 개선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추진한다. 이 청장의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 추진은 도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

이다. 이 청장은 정책 추진 일환으로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 위한 교통량 집중되는 주요 노선 등이 선정됐다. 관련해 오는 10월 1일까지 신호 연동 및 신호체계 개선이 집중 추진된다. 이번 추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이어지며 특히 개선에 필요한 교통

상황 데이터를 온고을료를 시작으로 전주시 주요 노선에 대한 주행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한 GPS 기반 스마트 조사장비를 이용한 주행조사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차량 지·정체 및 평균 속도 △정차횟수 △소요시간 등의 교통상황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소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의 교통환경·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재난훈련

해의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에서 오는 선제적 대응훈련이 전주예수병원에서 실시됐다. 이에 신종신증주예수병원장은 지난 18일 ‘2026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재난훈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은 예수병원 감염관리실(실장 이종철) 주관으로 마련됐다. 훈련을 통해 치사율 높은 신종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 의심 환자가 원내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특히 이는 원내 최일선인 응급센터 비상 대응 체계 점검과 병원 전체 재난 위기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다. 또 훈련은 “안벽함을 증명하는 훈련이 성공한 훈련”이라는 핵심 기조 아래 전개되며 단순 매뉴얼 시연 이

상의 의미를 가졌다. 특히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전의 식소실로 인해 해외 유입 감염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돌발 의심 환자’라는 최악의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재연했으며 응급실 접수 직후 심정지 환자가 내원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즉각적인 심폐소생술(CPR)과 기관내삽관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훈련은 긴박한 응급 처치 과정 중에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의 최근 인도 여행 이력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즉시 보호자 면담을 실시해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와의 역학적 연관성을 포착, 환자를 즉시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원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신속하게 가동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소방용수시설 합동점검

화재현장 생명수 확보 최소공간 ‘5m’

전북소방본부가 화재 현장 생명수 확보 위한 최소 공간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2분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 추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5개 소방서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점검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점검이 핵심이다. 더불어 소화전 주변 반복민원 발생 구간과 소방차 접근, 급수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습 점유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북소방은 앞서 1분기 합동점검을 통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해 과태료 31건, 현지계도 43건 등 총 74건을 적발하며 생활 속 안전 문예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점검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추진된다. 소방서는 소화전 위치와 현장 접근 장애요인을 공유하고,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 권한에 따라 현장 안내, 차량 이동 유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민원 발생 지역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적색 노면표시와 주정차 금지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여름철 자연재난 긴급구조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가 풍수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 자연재난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 긴급구조대책 추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지며 도시민들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가 핵심이다. 아울러 대책 추진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확보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수방장비 사전 점검 및 운용능력 강화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실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및 순찰 강화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수중펌프 20대와 양수기 12대 등 풍수해 대응 장비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 숙달훈련을 실시했다. 또 의용소방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가, 둔치 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기상특보 발효 시 기동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풍수해 현장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기상 상황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청 ‘국민이 원하는 새만금 공공데이터 찾는다’

새만금개발청이 국민이 원하는 새만금 개발사업 공공데이터 위한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설문조사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널리 홍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를 찾으려는 것이다. 설문내용은 새만금청 공공데이터의 △이용 경험과 활용 현황 △추가로 얻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 △인공지능(AI)이 쉽게 학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이다. 새만금 사업과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통24’에 접속해 ‘새만금청 공공데이터 대국민 수요 조사’에 들어가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퇴직소방공무원 화재안전취약차 보살핌 나선다!

전주덕진소방서 출신 소방공무원 소방시설 설치교육위험요인 점검
전주덕진소방서 퇴직소방소방공무원들의 화재안전취약차 보살핌 사업이 추진된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기존에도 화재 취약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2명을 배치해 운영해 왔다. 이들은 올해 소화기 707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914개, 누전차단용 멀티탭 250개를 설치·지원하며 화재 취약 가구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신규 사업 일환으로

노후 아파트 연기 감지기 보급 위한 ‘안전전문관’ 3명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전주덕진소방서는 총 5명의 퇴직 소방공무원 인력을 확보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활동하게 될 총 5명의 인력은 화재취약차 기초 소방시설 보급 및 노후 아파트 거주 세대를 직접 방문해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안전 보살핌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농정원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 협력

농업 현장 체감 지능형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9일 농정원에서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기술 데이터와 농정원이 관리하는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생산 데이터를 결합해 우리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모든 농업인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연계 체계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인공지능 인프라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 즉시 학습 데이터(AI-Ready Data) 구축을 비롯해 신규 협력 과제 발굴 및 공동 수행,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협력 체계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두 기관이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농정원의 농업인 교육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촌진흥청의 대국민 인공지능 영농비서 'AI 이삭이'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기술력과 농정원의 교육·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농업·농촌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인공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9일 농정원에서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지능 전환(AI)이 한걸음 가까워졌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북전주농협,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한창'

딸기 공선회 '선진지 견학' 딸기 산업 발전 방안 모색

북전주농협 딸기 공선회 회원들이 선진농업기술 유통체계 벤치마킹에 한창이다.

이번 회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과 함께 고품질 딸기 생산과 함께 공동선별·출하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우수 딸기 재배농가 및 농산물유통시설 등을 방문해 최신 재배기술 운영 노하우를 공유 받았다.

이 자리를 통해 회원들은 스마트

팜 운영 사례 △노동력 절감 기술 △품질관리 △공동출하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딸기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회원 간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공선회 조직 활성화와 공동사업 확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앞으로도 딸기 공선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동출하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복분자 수확

병해충 점검·적기 방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복분자 수확철을 맞아 고품질 복분자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수확요령과 수확 복분자는 과실 전체가 짙은 흑자색으로 완전히 성숙했을 때 당도와 향이 가장 우수하다.

달 익은 과실은 당도가 낮고, 과숙된 과실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적기수확'이 상품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특히 복분자는 과실 조직이 연약해 수확 후 품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간대에 수확하고, 수확 즉시 직사광선을 피한 상태에서 예냉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저장 시에는 0~2℃의 저온 환경을 유지하면 신선도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수확이 끝난 후에는 다음 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가 중요하다. 수확이 완료된 결과모지는 제거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점검해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또한 수세 회복을 위해 질소·인산·칼리 등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고, 여름철 고온기에 대비한 수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포장 내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통풍 환경을 개선해 탄저병 등 병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부안, 정읍 등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복분자 생산지를 형성해 우수한 품질의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 김주희 소장은 "최근 이상기상과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확 및 재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북농기원> 이어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보급과 현장지원을 통해 전북 복분자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태추단감연구회 고품질 생산기술 전문교육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농가 경쟁력 강화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제2청사에서 태추단감연구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변하는 재배 환경에 맞춰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감 재배 분야 전문가인 조광식 박사가 맡았다. 조 박사는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한 수확 관리부터 생육 단계별 양분 공급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뤘다. 아울러 안정적인 작과를 돕는 결

실 관리와 주요 병해충 발생 특성, 효과적인 방제 요령 등 실제 농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여름철이 지난 후 과원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박사는 병해충 예방 방법과 품질 향상 비결을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율적인 학습과 정보 교류를 독려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품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자문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용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태추단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망 과수 품목인 만큼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현장 중심 기술 지도를 거쳐 농업인의 영농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품목별 연구회를 <사진=정읍시>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은행, 미등록 이주민 후원금 1억원 전달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박춘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장이 미등록 이주민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후원금 1억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박 은행장 후원금 전달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미등록 이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지원망 형성에 기여하고자 19일 마련됐다.

관련해 전북은행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와 협력해 도내 미등록 이주민에게 1인 최대 500만 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은 미등록 이주자 정 10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 날 전달식에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김미선 상임이사, 참좋은이웃 김중봉 센터장, 성요셉노동자 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 전북은행 하범서 부행장 등이 참여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다문화이동, 치매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샘골농협 '맥류 붉은곰팡이병' 공동방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리, 밀 등 맥류 재배농가에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읍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은 관내 맥류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키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인 공동방제 지원에 지난 3월부터 총력을 기울였다.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이삭이 패는 출수기부터 알이 여무는 유숙기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이다.

특히 이삭이 패고 꽃이 피는 시기에 3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내리고, 기온이 15~30℃,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온난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샘골농협은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전면적인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허수종 조합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맥류의 생육 주기가 빨라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농가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초기 방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샘골농협은 첨단 드론 방제 지원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한편, 선제적인 방제로 맥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농기원 '천적 농업 활성화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분관에서 농업인, 연구기관, 대학, 시군농업기술센터,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천적 농업 활성화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은 천적, 전북 농업에 큰 변화를 꾀하다!'를 주제로,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체계를 확산하고, 농업현장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올 해 천적이리응에 1,500여만 마리 분양 성과와 딸기 총채벌레 천적 활용 종합방제 기술, 전북대와 공동 추진 중인 글로컬 신규 천적

발굴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의 천적 산업 현황(취오알 함은혜 대표)', '자원 확보부터 현장까지 적용되는 천적 기반 해충방제 연구(국립농업과학원 서미자 박사)', '천적 자가증식 기술(경북대, 정덕웅 박사)' 등 국내 천적 전문가 강의로도 진행해 연구 개발부터 산업화, 그리고 농가 활용 사례까지 공유했다.

전북농업기술원 최소라 농업환경과장은 "전북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천적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자가증식 기반을 확대해 전북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분관에서 '전북 천적 농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농기원>

대한민국 대표 관광 성지 “새만금”

새만금 관광은 역사·수학여행·힐링 팸투어

전북특별자치도와 로컬콘텐츠연구소는 '2026년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를 이달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첫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새만금 역사여행'으로, 군산·김제시 역사 현장 답사와 함께 체험 활동과 맛 중심의 투어로 이뤄졌다. 두 번째 프로그램 '새만금

수학여행 탐색'은 수도권지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부안 변산지역에서 이뤄졌고, 오디청 만들기과 메타버스 체험, 로컬푸드 장보기 행사가 중심이었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3차 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SNS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 어촌 힐링 테라피'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새만금 팸투어와는 약간 다른 색채로 진행됐다.

가장 큰 특징은 바닷가 카페에서 명상과 아로마테라피, 그리고 폐각다육화분 만들기를 체험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은 궁항마을주민들이 어촌 생활력 증대를

위해 구성된 “변산바람꽃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진행한다는 점이다. 즉 이번 프로그램은 명실상부한 주민공동체와 함께하는 'NEW K-관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새만금 신시광장·신시갑문 및 새만금 방조제 견학과 변산반도의 독특한 명소인 숲길과 수성당 일원 등도 방문해 새만금과 그에 인접한 지역들의 관광매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평선 너머 새만금 맞이행'이라는 선명한 주제에 걸맞은 특색있고 흥미 넘치는 지역 먹거리도 제공해, 맛의 전북 이미지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듯 2026년 '새만금 팸투어'는 역사 자원과 문화관광자원, 미식자원, 체험자원의 창의적 융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새 정부 들어 부쩍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지역의 관광 외연을 크게 넓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 운영자인 로컬콘텐츠연구소의 손은나 대표는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를 통해 새만금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대한민국 대표 K-관광의 성지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2025년 제20회 문체부장관기 및 남원전국당구선수권대회 모습 <사진=남원시>

전국 최대 당구대회, 남원서 열린다

23~28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당구 축제인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 및 2026 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과 이백행복나눔센터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대한당구연맹이 주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당구연맹, 남원당구연맹이 주관한다.

전국 각지의 당구 동호인과 전문체육 선수들이 남원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주요 경기 관람과 축구 월드컵 응원 이벤트, 등이 함께 마련돼 선수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스포츠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생활체육 부문 825명, 전문체육 부문 642명 등 총 1,467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다.

선수들은 6일간 남원에서 캐롬, 포켓볼 등 각 종목별 경기를 치르며 전국대회 우승을 다툰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국내 정상급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최근 2026 앙카라 세계3쿠션당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조명우(서울시청)를 비롯해 허정환(경남당구연맹), 임윤미(서울시청), 이대규(서울시청), 김행직(전남당구연맹) 등 각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2026 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최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다.

25일에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와 연계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주요부 본선 및 주요 경기는 'SOOP' 및 'SOOP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정읍 물빛축제' 7월 31일 개막

춤 추는 정읍 여름밤

정읍시가 내달 31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사흘간 정읍전 벽천분수와 미로분수 일원에서 국카스텐, 하하 등 유명 가수가 참여하는 '2026 정읍 물빛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올여름 정(井)했어! 물빛 춤추는 정읍의 여름밤'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기획됐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행사 구역을 분수 주변 수변 공간으로 완전히 옮겼다.

또 여기에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한층 역동적인 여름 행사로 변화를 꾀했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 정상급 예술가

(아티스트)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맞이한다.

개막일인 31일에는 독보적인 록 음악을 선보이는 국카스텐과 케이팝 대표 여성그룹 하이키가 분위기를 띄운다.

이어 8월 1일은 육중완밴드가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일은 하하&스컬이 출연해 신나는 레게 음악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강렬한 박자와 시원한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전자 댄스 음악(EDM) 파티는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주요 볼거리다.

더불어 줌바댄스, 청소년 무대 등이 차례로 펼쳐져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새로 조성한 벽천분수의 물줄기와 쉼터 분수의 은은한 조명을 활용한 물 음악 공연(위터뮤지쇼)도 빼놓을 수 없다.

밤하늘 아래 물과 빛,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색다른 낭만을 선사한다.

미로분수 주변에는 물놀이 구역(위터플레이존)을 비롯해 물총 싸움, 물빛 체험 행사, 먹거리 공간, 먹거리 트럭 등 온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물빛축제는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수변 공간의 매력을 살린 체험형 야간 축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사진=정읍시>

있도록 행사를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원 기자

익산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익산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20일 다솜무지개마을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펫프렌드 익산 칼리지-펫 피트니스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운동 습관 형성, 보호자와의 교감 향상을 돕기 위해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반려동물의 신체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법을 비롯해 놀이를 활용한 피트니스 활동,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장애물 넘기와 균형 잡기,

놀이형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습으로 반려동물의 신체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방법을 배운다.

시는 반려동물 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펫프렌드 익산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펫 여행가이드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펫 아로마테라피 교육과 펫 피트니스 교육을 진행하며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보호자와의 교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여자유도 전국대회에 고창군 "우승"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지난 15~18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린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메달을 다수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개인전에서는 김아현 선수가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순천시청 선수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서윤 선수는 여자 -52kg급 은메달, 김현아 선수는 여자 -57kg급 은메달, 서수빈 선수는 여자 -63kg급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단체전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결승전에서 부산북구청을 상대로 3대 2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정윤 선수와 김아현 선수는 각각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기록했으며, 서수빈 선수는 상대 선수의 기권으로 승리를 거두며 팀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선수단을 이끈 이지연 지도자는 우수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수들과 지도진이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유도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장년층 판소리 교육 운영

장년층 대상 판소리 교육프로그램 '흥보따리'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도내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력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본 사업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유형으로 추진되며, 전통예술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소리꾼 진은영이 강사로 참여해 판소리의 기본 발성과 장단, 표현 기법 등을 지도한다.

참가자들은 판소리 특유의 '동성'을 배우며 소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전통예술의 정서와 흥을 직접 경험

하게 된다. 교육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50~60대 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앞으로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장과 예술단체,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문화예술회관 또는 국은예트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교통 안전 캠페인

미끄러운 빗길, 안전거리 확보!

제동거리 증가!

타이어 공기압&마모 점검필수!

수막현상 발생 위험!

침수도로 진입 절대금지

침수도로 진입 금지

무리한 강행시 사고·차량 전손 위험



침수도로 통제위반 시 법적 책임

지시불이행 처벌



익산시 '윤희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 개관

익산시는 지난 19일 소라공원에서 '윤희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 개관식을 열었다.

'문학의 집'은 윤희길 작가의 소설 '소라단 가는 길'을 배경으로 조성됐다. 6·25전쟁 전후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복구해 익산 지역이 품은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문학의 집은 '그날 이후로 소라단은 우리의 놀이터가 됐다'라는 소설 속 문장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인간애와 동심을 기억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작가의 고결한 삶과 익산의 역사적 배경이 어우러진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윤 작가가 기증한 친필 원고와 평소 쓰던 집필 도구 등 70여 점의 소중한 자료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소설 속 소라산의 숲이 이제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방으로 되살아났다"며 "이곳이 시민들에게는 깊은 휴식을 주고, 익산에는 새로운 문화의 향기를 가득 채우는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마련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26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시 관람과 연계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2층 규장각실에서 진행되며,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달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을 맞아 '종이 손부채 만들기'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도안과 디자인을 활용해 자신만의 손부채를 제작할 수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민화 캔버스 액자 그리기'를 진행한다. 전통 민화가 그려진 캔버스에 색을 입혀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료 관람 혜택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별트리지역을 비롯해 체만식민학관, 3·1운동100주년 기념관,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금강미래체험관은 매주 수요일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해당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예비 귀농인 20명 귀농체험 학교 전원 수료

전국에서 모인 20명의 예비 귀농인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에서 열린 귀농체험 학교를 전원 수료하며 농촌 생활의 첫걸음을 뒀다.

정읍시는 꽃두레 행복마을을 비롯한 시 일원에서 '2026년 상반기 귀농체험 학교'를 열었다.

'어서와 정읍은 처음이지'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귀농과 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농촌 현장을 직접 겪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단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은 1박 2일의 교육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교육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이론 수업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블루베리 수확, 표고버섯 재배 등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돼 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농업과 가공,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현장도 방문해 농촌이 가진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현장 교육이 참가자들에게 정읍의 우수한 농업 환경을 알리고 귀농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 희망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정읍, 생활안전개선 '총력' 2(題)

군산시, 집중안전점검 마무리

후속 조치 본격 추진

군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과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집중안전점검 단장인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당초 점검 대상 115개 시설에 행정철 점검 대상과 주민점검신청제 대상,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 대상 등 44개 시설을 추가해 총 159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100%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점검과 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협의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을 중심으로 우기 대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재해위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배수시설 상태 및 사면 안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가벼운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긴급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안심 수질 관리 점검

정읍시는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6년 상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수질 검사 결과 공유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협력 기구다. 수질 검사 과정에 참여해 관리 방안을 자문하고 수도 시설 운영 개선점을 제안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수질 검사 결과와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참석한 위원들은 취수부터 생산, 공급까지 이어지는 전체 수질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소통 확대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관찰과 선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체계적인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구직 여성과 기업 잇는다"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30개 기업 참여

익산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6 여성친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립과 삼양식품, 엔젤이로 재단 등 30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상담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얻고 취업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기업들은 현장면접 이후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력서 컨설팅과 전문직성 검사, 타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JTBC 프로그램 '이혼속려캠프'에서 상담가로 활동 중인 이호선 교수 초청 특강도 마련된다. 'AI 시대 적응력과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필요한 역량과 진로 방향에 대한 조언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취업박람회가 여성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장 방문 또는 전화(063-853-5625)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여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내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내달 9일 열려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정읍시는 내달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4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조사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 제도다. 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건, 경찰, 재정, 세무를 비롯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 도로 등 폭넓은 분야의 생활 불편 사항을 다룬다.

여기에 4개 전문 기관이 동참해 맞춤형 상담을 덧붙인다. 참여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이다. 시는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자 '상담 예약제'를 도입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감사과나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예약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사전 신청 기회를 놓친 시민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거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해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9대 익산시의회 마무리 간담회 개최

4년간의 의정활동 마칩표 희망찬 새출발 다짐

익산시의회는 지난 19일 공 웨딩홀에서 제9대 의회 마무리 간담회를 열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마칩표를 찍었다.

김경진 의장, 강경숙 부의장을 비롯한 제9대 익산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진 의장은 의원들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제9대 의회의 성과와 제10대 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확대에 발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힘썼다.

특히 제9대 의회는 5분 자유발언 258건, 시정질문 37건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 253건을 처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쉼 GPT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연구단체 운영하는 등 의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김경진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제9대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식 임기는 마무리 되지만 앞으로도 익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불용농약 수거

농촌 환경 보호

익산시가 방치된 불용농약을 집중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시는 마을이나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보관 중인 불용농약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불용농약 집중 수집의 날'을 운영한다.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이를 수집해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마을이나 농지 주변에 방치된 불용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농약

중독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2020년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에는 약 2.5톤, 지난해에는 약 1.7톤의 불용농약을 수거·처리하며 농촌환경 보호에 힘써왔다. 불용농약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청소지원과(063-859-547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환경 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용농약 집중 수집의 날을 운영한다"며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1월까지 '농촌 체험 학습' 열려

정읍시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11개 교육 농장에서 인근 대도시와 관내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생채 관찰과 수확을 해보는 '2026년 오감 만족 농촌 체험 학습'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유치원생과 초·중학생들이 자연을 직접 겪어보며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총 18개 학교가 43회에 걸쳐 참여한다. 시는 참가자 1인당 1만 5000원의 체험비를 지원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임암초등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 학생 380명이 다녀갔다. 하반기에도 계절 변화에 맞춘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진다.

현장 학습은 지역 내 11곳의 농촌 교육 농장에서 열린다. 참여 학생들은 산림과 숲 체험을 시작으로 곤충 생태 관찰, 타조알 공예와 요리, 알로에 가공, 블루베리 수확 등 각 농장 특성을 살린 실습에 동참한다.

김원식 농촌지원과장은 "오감 만족 농촌 체험 학습은 학생들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직접 겪으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교육 농장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집수리학교' 나눔문화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활기초 역량을 높이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집수리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익산시는 지난 19일 '제4기 집수리 학교'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육생 60명의 수료를 축하했다.

집수리학교는 익산시가 후원하고 익산지역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수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4기 교육은 기초과정 2회와 심화과정 1회로 구성돼 총 6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남중동 소재 (주)사각사각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전기·조명 설비, 욕실·주방 설비, 포인트 페인팅, 생활 도배·방수 등 일상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실습 위주로 운영됐다.

특히 수료생들은 교육을 통해 익힌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 수리·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집수리학교가 내 집 내가 고쳐 쓰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과 이웃 간 나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교육지원청>

군산학생의회 '자치리더십 체험학습'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제4기 군산학생의회 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서울 일원에서 '2026년 군산학생의회 자치리더십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인 국회의 직접 방문해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 과정을 이해하고 학생의 의 의원으로서 필요한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이 논의·의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국회 본회의장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

배우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겼다. 이어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의 만남을 통해 국회의 역할, 입법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하며 국회 운영 과정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이번 체험학습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국비공조 요청

이현서 부시장
김제시 주요 현안 강조

지난 6.3 보궐선거 이후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박지원 의원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김제시가 주요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서 부시장은 지난 19일 박지원 국회의원실을 찾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용지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김제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의 중점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 관련 현안에 대해 이 부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김제시 주요 사업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째 골칫거리로 안고 있던 축산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새만금 유역



이현서 부시장은 지난 19일 박지원 국회의원실을 찾아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김제시>

수질 개선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심사와 정부안에서 과소 반영된 내년도 축사 매입비 75억 원의 전액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농업로봇 분야 기술개발 및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농업AI로봇 표준화 및 온디맨드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새만금 녹지면적 확충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사업 등 주요 국가 예산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건의사업은 김제의 미래지도를 새로 그릴 핵심과제”라며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김제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돼달라”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멜론 농업 시작

영농 정착 첫걸음
교육·기술지원 강화

고창군은 스마트팜단지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지난 18일 본격적인 멜론 정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멜론 정식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영농 활동으로,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현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는 총 12개팀이 입주 계약을 완료했다. 또한 고창군은 스마트팜단지를 청년농업인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해 현장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합환경에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사진=고창군>

김제시 ‘리·공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768필지 조례규칙심의
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김제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접수와 참여를 재차 당부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은 1910년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1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등 지형 및 생활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주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2024년 전북도 내 최초로 시작돼, 그해 하반기 ‘김제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

다. 특히, 지난해(2025년) 요촌동, 김산동, 백산면, 용지면 등 51개 리·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던 불합리한 행정구역 총 768필지를 발췌해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별도 예산 없이 오직 적극행정만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에 힘입어 시는 현재 2026년도 경계조정을 위해 관내(신봉동,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52개 리동) 전 수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나의 건축물이

나 토지가 서로 다른 리·동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제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달라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시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의 핵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불합리한 경계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김제시 리·공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된다”며 “이 사업이 읍·면·동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제23회 고창북분자 수박축제’ 성황

북분자·수박·풍천장어
주제 프로그램 선봬

고창군 대표 여름축제인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3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개막식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신운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군민 및 관광객 등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축했다. 동리창극단의 흥부전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환영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고창의 대표 농수산물인 북분자와 수박, 풍천장어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공연·판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고창 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창 수박 품평회’가 열리고, 장어잡기, 물총싸움, 장어물 3중경기, 수박 빨리먹기 대회,

플로깅&보물찾기, 수박 카빙대회, 어린이 풍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북분자와 수박,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우수 농수산물이다”며 “맛과 즐거움, 체험이 가득한 고창의 대표 여름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지역 농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비빔발레’ 기대

내달 3일 막 올려

부안군은 내달 3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발레시어터의 특별 공연 ‘Coloring 비빔발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이 함께 협력해 창작 환경을 넓히고, 지역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의 오방색에서 착안해 다양한 색채와 감성을 발레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발레단 출신 무용수와 국내 정상급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한국적인 정서와 발레 예술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발레



<사진=부안군>

공연을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무대가 전하는 다채로운 빛과 움직임 속에서 기쁨과 여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지역음료 시음 제품 인지도 높여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개발한 북분자 음료 ‘고창북분자 그린’과 ‘고창북분자 레드’ 시음행사를 진행했다.

‘고창북분자 그린’은 달 익은 북분자의 산뜻하고 깔끔한 맛을 담았고, ‘고창북분자 레드’는 무설탕으로 북분자 특유의 달콤한 맛을 살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제품을 직접 시음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소비자들의 기호도와 구매 의향 등을 분석해 향후 제품 개선과 홍보 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두 제품은 관내 마트·하나로마트와 고창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 북분자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은 북분자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원장은 “고창 북분자를 대표하는 축제에서 연구원이 개발한 제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리뉴어스(주), 김제시 고향사랑기부 동참

1000만 원 기탁

김제시는 리뉴어스(주) 정원의 기부금이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리뉴어스(주)는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둔 환경 전문기업이다. 현재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평소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해 오고 있다.

정원의 본부장은 “사업차 김제시를 방문하다 부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눈에 띄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저의 작은 정성이 갑작스럽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응원까지 건네 주신 김정택 대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가모집

고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

특히, 올해는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 내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올해 총 12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주택 183동, 비주택

23동, 지붕개량 35동 신청했으며,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비주택 6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부안군 백산면과 부안군 보건소 직원 20여명은 여름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작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상추정식 작업에 힘을 보탰다.

백산면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일손 돕기 인력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부안군, 맨드라미 꽃길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

부안군 행안면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맨드라미 꽃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꽃길조성은 스포츠파크 사거리부터 순환북로 사거리까지 4km 구간이다.

이날 지역 사회의 대표 봉사단체인 적십자봉사회와 자원봉사회 4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은 도로변 쓰레기와 잡초를 깨끗이 정비한 후 맨드라미 6만주를 식재했다.

맨드라미는 앞으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활력과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은 “바쁜 생업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꽃길 조성에 앞장서준 적십자봉사회와 자원봉사회 회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현업근로 체험식 안전보건교육 실시

김제시가 현업무중상자들을 대상으로 몸으로 직접 느끼는 ‘체험형’ 안전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익산안전체험장에서 현업무중상자 40명을 대상으로 가상 사고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익히는 체험식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시각 자료 중심의 이론 강의를 탈피해,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추락, 끼임, 감전, 화재 등 산업현장의 4대 주요 재해를 직접 체험하며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개인보호구 착용법 실습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안전은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보건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재시동

김성환 장관 현장방문 계기 건의 “섬진강 독립 물관리 필요” 강조 김 장관 “공정한 입지선정 추진”

지난 19일 남원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남원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건의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8월 유래없는 집중호우(강수량 542mm) 및 섬진강댐 제방 붕괴에 따른 홍수피해액(약 730억)이 전국 피해지역 17개 중 3번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22년 섬진강홍수통제소를 남원에 개설했다.

남원시는 전북도와 함께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섬진강환경정점협의회에 가입해 섬진강수질개선 종합계획 용역 수립 및 2020집중호우 피해관련 공동성명서 배포, 공동건의문 전달 등 지속가능한 섬진강수계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섬진강은 유역면적 4,914km², 연장 223km로 영산강보다 유역면적도 넓고 연장도 90여km 더 길지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다.

남원시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소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출장소로 인력 6명이 비상근무, 홍수예보, 갈수 및 가뭄 현장대응 등 광범위한 업무수행하고 있어 인력부족 및 전담관리 체계의 필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진=남원시>

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5대강 물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를 진행해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견고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기관단체 70여명 발대식 참여 양지천서 플로깅 활동 전개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함께 19일 순창읍 양지천 길에서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맞이 ‘순창군 함께 견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일 상 속 봉사활동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도민 참여형 생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자원봉사(Micro Volunteer)’를 기반으로, 하천 보호를 위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가족센터, 순창문화원, 순창JC특우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군협의회, 세계평화여성한국본부 순창지부 참사랑봉사단, 사회적협동조합 이름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한 뒤, 양지천 일대의 쓰레기 수거 및 정화 활동을 펼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



<사진=순창군>

지를 다졌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역 관광지와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에 걸맞은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크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며, “전북형 자원봉사 모델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자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은 “하천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실천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활 속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 영동군과 농촌 활력 상생 협약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와 영동군 마을공동체협의회가 농촌 마을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지난 18일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회장 박종배)와 영동군 마을공동체협의회(회장 윤여생)는 완주경제센터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두 협의회 간의 협약과 더불어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단장 최희주)과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센터장 박인용) 간의 중간지원조직 업무협약이 동시에 이뤄지며 협력의 깊이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정보의 상호 교환,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협력, 기타 업무 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종배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농촌 마을이 함께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소방서, ‘Best 소방관’ 및 ‘119 HERO 구급대’ 시상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지난 19일 상급제 ‘완주 Best 소방관’ 및 ‘119 HERO 구급대’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내 긍정적인 소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 Best 소방관’은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친절한 대민 서비스로 귀감이 된 직원을 동료들이 직접 추천·선발하는 제도로, 이번 상반기에는 소방위 이희대, 소방위 윤순상, 소방교 김무영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진행된 ‘119 HERO 구급대’ 시상에서는 위급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대원들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소방위 윤순상, 소방위 조현우, 소방장 황지훈, 소방교 유현석으로, 평소 뛰어난 현장 대응 능력과 헌신적인 구급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은 “앞으로도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보절면 ‘문화공간 이음’ 열어

문화적 소외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남원시 보절면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이 문을 연다.

신흥교회 박은열 목사는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908에 25평 규모의 ‘문화공간 이음’을 새롭게 건축하고, 지역 사회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뒀다.

박은열 목사는 개관 서언을 통해 “바라기는 이 공간이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며, “이곳에서 작가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절면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관을 기념하는 첫 기획전으로는 ‘사람과 풍경, 이음’이라는 주제 아래 김해곤 화가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展’(1부)과 오정숙 화가의 ‘풍경의 기록 展’(2부)이 펼쳐진다.

‘문화공간 이음’은 앞으로 다채로운 미술 전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미술 전시회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작은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및 간담회

새일센터·기업체 협력 강화 여성 채용 확대·정착 지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9일 남원시 평생학습관 별관 2층에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및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새일센터와 기업체가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이다.

이번 협약식은,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외 42개 관내 기업체가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했으며,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체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여성 고용 안정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연계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현장 소통경영 본격화

체육시설 순회 간담회 진행 복지·홍보·재정현안 의견 청취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시설 운영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체육시설 순회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출범 초기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군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근로자종합복지관(수영장)과 삼례청소년수련관(수영장) 체육시설 근무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

인 막을 올렸다.

해당 시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영 및 기계 직렬 등 현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 도입 △효율적인 시설 홍보 및 군민 접근성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등 굵직한 실무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공단은 이번 1차 간담회의 성공적인 소통 분위기를 이어 이서 및 용진 지역 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별 특성에 맞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32회 남원시민의장’ 후보자 모집

남원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고 영예의 상 제32회 남원시민의장 후보자를 오늘부터 7월 31까지 공개 모집(추천)한다.

남원시민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화장(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 △체육장(남원 체육 진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분) △호행장(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정성을 받는 분) △봉사장(지역

사회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분) △산업노동장(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 △애향장(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으로 부문별 1명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 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출신자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시청 관공서장 및 읍면동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통해 시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선제 대응 2(題)

순창군, 물놀이 성수기 앞두고 안전교육 강화

순창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대상 현장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3층 영상회의실과 경천 일원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장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요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스포츠안전협회 소속 수상안전 전문 강사

완주군, 호우 대비 산사태 대책 상황실 가동

완주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립 재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5일 완주군청 산립복지과 내에 ‘여름철 산사태 대책 상황실’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빈틈없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시 대응 체계는 해빙기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구축됐다. 군은 일찍이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540개소와 마을회관 등 산사태 대피소를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

현재는 4명으로 구성된 산립재난대응단이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밀착 감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산사태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는 즉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민 대피체계를 최신 정보로 유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산사태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道 최초 체납관리단, 징수·복지 ‘두 마리 토끼’

청년 채용 목표 59% 달성 위기가구 발굴·복지연계도 기여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역 청년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전화상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5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이 누적된 한 체납자가 상담을 통해 스스로 보유 차량의 매각 및 공매 처분을 요청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



<사진=순창군>

고 있다. 체납 징수활동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과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통영교육지원청에 교육 지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장단 등 방문 학교·마을 연계 교육정책 주목

경남통영교육지원청 방문단이 지역 기반 교육협력 모델과 교육발전특구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자 완주군을 찾았다.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이종국 과장을 비롯한 중등 교장단 및 교육전문직 20여 명은 지난 18일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교육을 확인하고, 지역 사회가 동참하는 교육적 실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통합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방문단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로부터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통합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학교·마을교육과정 운영 사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력 모델, 지역 교육자원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를 통영지역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경남통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와 중등 교장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협력 모델의 가치가 공유되고,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학교·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농업인 대상 시 활용 농업마케팅 교육 실시

장수군은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농업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복잡한 IT 기술 습득보다 농업인이 스마트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생성형 AI 활용법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의 개념과 농업 분야 활용 사례 이해를 시작으로 프롬프트 작성법, 홍보용 콘텐츠 제작, 스키투터 개발, 홍보용 영상 기획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문서 결과물을 직접 제작하는 실습 교육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과 농산물 판매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원예체험 운영

임실군이 드림스타트 양육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9일 임실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양육자 15명과 함께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육아와 일상으로 지친 양육자들에게 꽃을 매개로 한 심리적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이를 동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꽃바구니 만들기를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추억을 선사했다.

각자 개성에 따라 꽃바구니가 완성되어 가면서, 양육자들의 얼굴도 점차 밝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매일 반복되는 육아에 지쳐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예쁜 꽃을 만지며 아이와 웃으며 대화하니 쌓였던 스트레스가 녹는 듯 사라지는 기분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장애물 없는 세상 확대 민선 8기 공약사업

진안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세상 확대' 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의 생활 속 장벽을 낮추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3개소에 73건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용실 8개소, 카페 4개소, 슈퍼마켓 2개소, 기타시설 3개소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시설별로는 계단이나 화장실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손잡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휠체어 진입장벽을 없앤 출입구 경사로 22건, 손쉬운 출입을 돕는 자동출입문 22건, 기타 미끄럼방지 시설 2건이 설치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객과 소상공인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진안=전철민 기자

한득수 당선인 "행정혁신 전략 내세워"

실행력 갖춘 민선9기 출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약속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사진)이 행정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현장중심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기존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은 한 번 수립되면 별다른 점검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1일차 업무보고에서 "기존 군정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 삶 전반을 살피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

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직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직원들의 고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군민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 당선인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같은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복합 인허가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를 구축해 군민 편의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어르신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 접근을 주문했다. 한 당선인은 "다문화가정을 만나 보니 자녀들의 언어 적응과 학교생활,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이미유권이나 목욕권 같은 사업도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위생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현장 안전관리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 중심의 소통을 주문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 달려 있다"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분야에서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과 지역 자원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있는 자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며 "독활 등 지역 특 화작목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산림자원을 농가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상·하수도 민원서비스 24시간 제공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장수군은 군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그 간 상·하수도요금은 고지서 중심의 납부 방식으로 운영해 요금 조회와 납부에 불편이 있었으며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요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시

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번에 구축된 통합납부 시스템은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 △이차요금 정산 △수용가 명이변경 신청 △문자고지 신청·해지 등 다양한 상·하수도 관련 민원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또한 군민들은 장수군정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환경·위생-상·하수도요금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수용가 번호 등 본인인증 후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사를 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정산 처

리에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 간 요금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념행사 개최

사업 대상지 선정 자축 가장 모범적인 모델 구축 각오

무주군이 지난 19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기념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과 기본소득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의미와 추진 경과 등을 나누고, 기본소득 지급 절차와 시기, 등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허동일 기본소득연대 대표와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발전협의회장, 청년협의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주민들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경과보고와 축하 꽃다발 전달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 감사를 표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1차 시범사업의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와 묵묵했던 군민 여러분의 신뢰가 정부 기본소득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며 "기본소득이 100% 지역 소비를 부르는 순환 경제의 씨앗이자 살맛나는 무주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개발의 한계, 고령화, 인구감소, 소득 불안정이라고 하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무주를 살리는 정책 모델이기도 하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

들의 기본을 챙기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군민의 삶을 맨 앞에 두고 기쁘이 튼튼한 무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무주,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무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정부 농어촌 기본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무주군은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필요액 60억 원에 대비 53.1%를 초과하는 92억 원(군비)을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백형석 경찰서장·심민 군수 협력...치안 방안 논의

안전한 임실 조성에 맞춘'

임실군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부임한 백형석 신입 임실경찰서장이 지난 19일 임실군정을 방문해 심민 임실군수와 환담을 갖고, 지역 치안 안정과 군민 안전을 위한 깊이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신입 임실경찰서장의 부임 인사를 겸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군민이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치안 분야의 긴밀한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군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임실경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경찰이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 안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이에 백형석 신입 서장 역시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치안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화답했다.

앞으로 임실군과 임실경찰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지역행사 안전관리 △교통질서 확립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재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 러브네이처 트레일 무주'가 지난 20일과 21일 무주군 시내와 향로산 일원, 소이나루공원에서 개최됐다 <사진=무주군>

'2026 러브네이처 트레일 무주'

무주군, 산악관광도시로 부상

'2026 러브네이처 트레일 무주'가 지난 20일과 21일 무주군 시내와 향로산 일원, 소이나루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관광 벤처기업 베이스드 인 네이처(Based In Nature)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Better than In-gamso' 지역 관광 인증제에 따른 연속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동-도전-회복-소비-문화 향유'가 결합한 여행형 러닝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양일간 무주읍 향로산과 금강 변을 잇는 트레일 코스를 따라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을 만끽했다.

특히 기록 경쟁이 아닌 완주와 경험에 지향점을 둔 트레일 러닝과 향토 음식 맛보기, 요가·마사지, 저녁 식사와 함께한 참가자 네트워킹, 지역 카페 연계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의회 국순화 고문변호사 위촉

전문적 법률 자문 수행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은 지난 19일 의정실에서 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만성)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임실군의회의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 자문 △의회 관

련 행정소송 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행정법률 해석 등 상시적인 법률 자문과 전문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은 이달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장종민 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구성될 차기 의회가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법률 보좌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안정적 영화관 운영 기반 마련

장수군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한누리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기존 운영업체인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와 체결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9년 6월까지 총 3년이다.

장수한누리영화관은 지역 내 대표 문화시설로 최신 영화 상영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개관한 작은영화관으로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청소년 대상 동물매개치료 진로교육

임실군과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는 지난 16일 오수 반려누리 교육실에서 전북대학교 1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교감치유 및 동물매개치료사 진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에게 반려동물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나비에뜰 동물매개치료료 연구소 장욱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동

물매개치료의 개념과 역사, 국내외 발전 현황, 치유 효과 및 적용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동물매개치료사 등 관련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학생들은 반려동물과 직접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향상 등 동물매개치료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봉어빵아저씨 김남수씨, 2012년부터 매년 365만원 기부

총 기부액 4,380만원 달성

익산의 봉어빵아저씨 김남수씨가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익산시는 지난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과 함께 김남수씨의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을 축하하며 인증패를 전달했다. '나눔리더'는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로,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클럽이다.

김남수씨는 원광대학교 후문 맞은편에서 봉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매일 1만 원씩 모아 매년 365만 원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이어온 나눔으로 총 기부액 4,380만 원을 기록한 김씨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남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상관면 어르신 통학로 안전 확보

완주군 상관면 지류빌경로당(회장 김영주) 어르신들이 지역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지류빌경로당은 최근 상관초등학교와 상관중학교 정문 및 주요 교차로 일대에서 '등하굣길 어린이·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오전 등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에 맞춰 하루 총 2회에 걸쳐 밀착형으로 펼쳐져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지류빌경로당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학교 앞을 지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불법 주차자 금지를 당부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자"며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안내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전MCS 전북지사 외 14개지점, 보훈가족 지원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와 업무협약·기부금 전달

한전MCS(주) 전북지사(지사장 정요섭)와 14개 지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박연호 지부장)는 지난 18일 한전MCS(주) 전북지사 외 관내 14개 지점장들이 참석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전달된 기부금은 한전MCS(주) 전북지사를 비롯해 관내 14개 지점 △전북지사직할지점 △익산지점 △남전주지점 △군산지점 △정읍지점 △김제지점 △남원지점 △고창지점 △부안지점 △임실지점 △진안지점 △장수지점 △순창지점 △무주지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 등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를 통해 생환이 어려운 보훈 가족의 생계 지원 및 복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18일 한전MCS(주) 전북지사 외 관내 14개 지점장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발달장애인·비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장애 문화 확산 인권감수성 향상 기대

익산시가 발달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이해와 공감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발달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인식개선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 공감 문화와 인권 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총북 단양군과 강원 영월군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등 136명이 참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 활동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일상 속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인월면-함양 병곡면, 고향사랑기부

남원시 인월면과 함양군 병곡면이 지난 18일 자매결연 교류의 하나로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시행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과 우호 증진에 나섰다.

이번 기부는 양 지역 주민과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월면 관계자는 "자매결연을 맺은 병곡면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상호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병곡면 관계자 역시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군, 지역 출산 가정 "축복"

4대(代) 대가족 군, 출산 적극 지원

고창군은 출산 지원 정책으로 △첫만남이용권(200~300만원) △산후조리비 200만원 △산후건강관리 쿠폰(20만원) 등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이 지난 18일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한 상하면 가정을

찾아 출산축하박스를 전달했다.

해당 가정은 이번 자녀 출산으로 4대(代)가 함께 상하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상하면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참여해 쌀(10kg), 그릇세트 등을 전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각종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화재 피해 가구에 성금 기탁

김제시는 지난 19일 (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가 관내 화재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위기가구를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신속한 주택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합형 사회적기업인 (사)꿈드래장애인협회는 평소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위기 가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한달음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 하태복 회장은 "성금이 피해 가구의 주택 복구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독거노인 150세대에 김치나눔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지회장 위중량)가 지난 18일 신평문화회관에서 이웃사랑 사랑애 김치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임실군 12개 읍·면에서 50여 명의 새마을부녀회(회장 심미혜) 회원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성 가득 김치를 담갔다.

회원들의 땀방울로 완성된 총 150통의 사랑의 김치는 임실군 관내 독거노인 150세대에 신속하게 전달됐다. 전달 과정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극진히 살피는 회원들의 모습이 훈훈함을 더했다.

위중량 지회장은 "이런 아침부터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회원들의 땀방울이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고, 함께 고생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생활 속 필요한 인진수칙

화재 안전편



〈一事一言〉



추경이 남긴 과제, 새로 돛 올리는 전북 도정과 교육정에 바란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난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 첫 추경추경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번 추경안의 성적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북도 소관 예산은 10조 4,268억 원 원안 그대로 가결된 반면, 도교육청 예산은 124억 원이 깎이는 수정 의결을 맞이했다. 재정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송곳처럼 들여다본 도의회의 이번 '투트랙 심사'는 민생 안정을 향한 엄중한 촉구이자, 동시에 막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신임 도지사과 도교육감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능자다.

이번 추경에서 전북도 예산이 단 한 푼의 감액도 없이 원안 가결된 배경에는 '민생 구제'라는 절대적 명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전북 경제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된 총 2,734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다. 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그리고 불류업계의 마른눈에 대는 대지의 젖줄이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전례 없는 원안 통과로 화답한 것은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고, 행정과 의회가 따로 일 수 없다는 초당적 결단이자 도민을 위한 협치의 모범 사례다.

새로이 전북 도정을 이끌게 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이러한 의회의 협치 정신과 도민의 간절함을 가늠하여 여겨서는 안 된다. 예산 편성과 의결은 정책의 시작일 뿐, 결승선이 아니다. 이제는 전방위

적인 집행의 시간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확보된 민생 예산이 행정의 관료적 문턱에 걸려 지체되지 않도록, 현장의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임 도지사가 증명해야 할 첫 번째 경영 능력이다. 더불어 이번 협치를 자랑분 삼아 향후 도정 운영에서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반면, 124억 원의 칼질을 당한 도교육청의 추경 결과는 향후 교육 행정의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야심 차게 편성한 '디지털교육 기반조성' 사업비 7억 5천여 만 원이 전액 삭감된 대목은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대방향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과의 면밀한 교감이 나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채 속도전에만 치중한 예산은 과감히 숙여내겠다는 의회의 심사가 작용한 결과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장의 준비 태세와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도민의 선택을 받은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은 오랜 기간 교단과 대학에서 활동해 온 자타공인 '현장 교육 전문가'다. 그런 그에게 전북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관료주의에 물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수렴하는 '교실 중심의 교육 개혁'을 이뤄달라는 것이다. 신임 교육감은

이번 추경안 삭감을 아픈 예방사자로 삼아야 한다. 정책의 선후(先後)와 완급(緩急)을 다시금 정교하게 가다듬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높여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의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특단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때다.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지나간 지금, 전북은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돛을 올리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결과는 신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마주해야 할 전북의 냉혹한 현실이자,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당면 과제들의 축소판과 같다. 한쪽은 고물가·고유가에 신음하는 도민의 팍팍한 삶을 실질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무거운 경제적 책무를 짚고, 다른 한쪽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전북 교육의 중심을 잡고 기초학력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교육적 책무를 졌다. 두 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유가 여기 있다.

분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예산이 단순한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전북 경제의 막힌 혈을 뚫고 숨통을 틔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새로이 출범하는 이원택 도정의 '포용과 실용 행정', 그리고 천호성 교육청의 '현장 중심 교육 대전환'이 톨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광역자치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난다. 두 수장이 이끄는 쌍두마차가 낙후된 전북의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172만 도민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설

정청래의 당대표 출마, 민주당을 위한 길인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정 대표의 출마는 당의 미래보다 혼란과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 하락과 일부 지역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당내 원로와 중진들까지 공개적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라면 이러한 목소리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당권 경쟁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정 대표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전당대회는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친정청래

와 반정청래 진영의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당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이 당권 다툼에 매몰되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역할은 정권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도부 책임론 속에서 벌어지는 당권 경쟁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은 출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때로 출마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도전이 아니라 당의 통합과 쇄신을 위한 결단이다.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길이며 진정한 정치적 책임의 모습일 것이다.

독자투고

질서, 시민의 안전과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서 아직도 위협천만행동과 집회방식으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경찰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집회의 본질을 흐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한 집회 행위를 적절하게 바꾸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질서유지선(Police Line)'에 대한 존중이다. 질서유지선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며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 등 공권력 사이의 '안전 약속'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다음과 같음을 알고자 한다.

△참가자의 안전 확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나 주행 중인 차량으로부터 참가자들을 분리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충돌 완화

지대: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여 평화로운 집회 환경을 조성한다. △시민의 통행권 보장: 집회 공간과 시민들의 보행로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준다.

이와 같이 질서유지선은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순간, 집회가 전달하고자 했던 고귀한 메시지는 '무질서와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이미지에 묻혀버리고 말게된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이 보장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경찰, 그리고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익산경찰서 경비직전계 경위 황호인

오늘의시

저녁의 소묘 / 한강

어떤 저녁은 피투성이
(어떤 새벽이 그런 것처럼)

어둠이 주섬주섬
얇은 남루들을 꺼내고

표정으로 읽히도록

가끔은 우리 눈이
흑백 렌즈였으면

외등을 피해
걸어오는 사람의
평화도,

외등은 희고
외등 갖의 바깥은
침묵하며 잿빛이도록

흑과 백
그 사이 수없는
음영을 따라

오랜 지옥도
비슷하게 희끗한

그의 눈을 적신 것은
조용히,
검게 흘러내리도록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2024년 대한민국 작가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 | |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중양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 임실지국 010-8842-8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인후지사 010-8640-6855 |
| 익산지국 010-9560-3075 | 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
| 팔백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
| 순천지사-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김제시 100년 후 시간을 남기다

김제시민의 역사 시민기록물



사라져가는 시민의 흔적을 기록의 장으로 남기기 위해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과 기록화 사업을 통해 '기록문화 기반'에 김제시가 승전을 꿈꾸고 있다.

◆ 시민기록에 주목하는 이유

급속한 현실 변화는 마을의 풍경, 생활문화,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약화되는 복합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 중심의 공공 기록만으로는 지역의 진짜 모습을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민기록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주민이 직접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기록을 축적해 지역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시민기록물 공모전 2,900여 점 기록 모이다

시민기록물 공모전은 시가 민간의 기록을 공공의 기록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5

년 제5회까지 총 2,900여 점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가정에 보관해 온 사진, 문서, 편지, 박물 등 일상의 흔적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증명하는 소중한 사료로 재발견되고 있다.

기록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기억이 모여 완성되는 만큼, 시는 이를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시와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숨겨진 지역의 공간 기억을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당신의 기록 속, 김제의 그곳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제6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벽골제와 금산사 등 김제의 대표 명소는 물론 학교, 극장, 시장, 옛 골목 등 일상 속 장소와 관련된 다채로운 기록물을 집중 수집해 장소에 얽힌 공동체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의 목소리 '김제시 기록화 사업'

시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공동체 기억을 붙잡기 위해 '김제시 기록화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교월동과 신평동을 시작으로 관내 19개 읍면동 중 현재까지 13개 지역의 기록화를 완료하고, 총 13권의 기록집을 발간했다.

올해는 용지면과 백구면을 대상으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금구면, 금산면, 검산동, 요촌동을 순차적으로 기록화하여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한 기록화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문헌과 유관 기관의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구술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이 소장한 사진과 문서 등을 결합

'시민기록물' 김제시민 행복

해 마을의 형성과 변화, 일상과 기억을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공식 통계로는 알 수 없는 농촌 마을의 개발 전후 모습, 공동체 행사와 풍습 등이 주민들의 생생한 언어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시는 2025년 '지역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아카이브'라는 사업명으로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전북 RISE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도비 5억 2,5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가하고 있다.

◆ 기록 전시로 되살아나는 기억

시는 수집된 기록물을 단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 5회의 시민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지평선축제와 국가유산야행 등 지역의 주요 축제에도 15회 이상 참여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지역의 기록을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록을 제공한 시민에게는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미래 세대 위한 김제의 기억은 계속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기록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남은 읍면동 기록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전시·출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기록의 가치를 시민 일상 속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기록물 사업은 지역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 세대에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작업"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김제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